

GIST 여름학기 대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(G-SURF) 포스터 세션 열어

- 학부생 52명이 38명의 대학원 교수와 매칭되어 여름방학 동안 대학원 실험실서 연구 수행... 교수 멘토링과 연구실 경험 통해 연구자의 꿈 키워



▲ 2024년 G-SURF 포스터 발표회장 전경(GIST 오룡관 로비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8월 30일(금) 오룡관 로비에서 '2024년 여름학기 대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(G-SURF)* 포스터 발표회(Poster Session)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G-SURF는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는 GIST 학사과정의 대표적인 연구 참여 프로그램으로,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동안 개최되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.

* **G-SURF**: 미국 칼텍(Caltech)의 하계 대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SURF(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)를 벤치마킹한 GIST대학의 여름방학 프로그램

G-SURF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대학원 실험실에서 기초과학의 원리와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보고, 대학원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받으며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습득할 수 있다.

올해는 총 52명의 학부생이 38명의 대학원 교수와 매칭되어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,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.



▲ 2024년 G-SURF 포스터 발표회 마무리 기념 단체 사진

신소재공학부 윤명한 교수의 '생체전자 소재 연구실(Bio-Electronics Materials Lab)'에서 G-SURF를 수행한 **권나현 학생(신소재공학전공 2학년)**은 "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었고,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나 시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,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파악 할 수 있었다"며 "대학원생 선배님들의 일상을 엿보며 연구실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기계로봇공학부 허필원 교수의 '동역학 및 생체공학 연구실(Dynamics and Biomechanics Lab)'에서 G-SURF를 수행한 **김민석 학생(기계공학전공 3학년)**은 "연구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, 교수님의 지도와 연구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"고 말했다.